

기고

이형석 부안경찰서 경무계장



학교폭력, 작은 관심과 배려로 예방하자

날이 갈수록 밝게 아침을 비추는 태양과, 스멀스멀 길어지는 하루를 보니 벌써 봄도 끝자락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개학기를 지나, 학생들 간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로 학교폭력 발생이 잦은 기간이다. 때문에 따뜻함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등굣길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공격과 재산상 피해를 가하거나 하거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따뜻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정도는 30% 정도 높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확인해보면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이 뒤를 이었으며, 사이버 괴롭힘(10.8%)이 신체폭력(10.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IT시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그 수위나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그 방법도 날로 지능화, 조직화, 잔인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있다.

주요 피해 장소는 예상대로 학교 안(55.8%)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경찰·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부안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에 방을 위해 2012년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

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점차 활동범위도 확장할 방침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선도 및 피해학생의 보호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117센터, 1388 청소년긴급전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주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학교부적응, 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종 선도프로

그램이 전개되고 있어, 보여주기가 이벤트나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은 경찰·교육당국 간 긴밀한 협조와, 각종 시스템의 완비도 중요하지만,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고, 교사·학부모·일반국민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부처주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마솥 밑의 뿔나무를 빼내어 끓여 넘치려는 물을 식힌다는 뜻으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위기에 대처한다는 뜻이다.

우리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은 학교폭력에 걸맞은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업무를

이제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社說

공무원도 드론을 배워야

지난 1월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방역 당국 등이 실시한 소독에 드론 8대가 동원됐다.

당시 당국은 구제역 발생지와 소·돼지 등 우제류 밀집사육지역을 대상으로 고강도 소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소독약 살포 작업 등에 사용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랭지 배추 관리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공사 측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등 지형이 험해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운 곳 등에 드론을 날려 배추의 생육 상태를 살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드론이 직불금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일선감리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상호 배려하고 관심 가져 주는 것이 아닐까?

공무원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드론을 직접 조정하는 능력은 물론 드론을 여러가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산림과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정보를 바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소나무 고사목을 관측해낼 수 있는 시를 개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드론을 이용해 바다 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및 해양쓰레기를 감시하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항만보안, 적조·녹조 예방,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제 공무원도 드론을 배워야 할 때가 됐다. 신진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수가 된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아파트,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최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외 40명이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중 아파트 및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소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시 초기대응이 미흡하게 되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높게 된다.

특히, 화재사고 아파트 대부분

이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쉬우며 연기확산에 의한 대피가 어렵고 화재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의 확장추세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내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 유사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자칫 대형피해 발생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예방

을 위해서 소방관서에서는 특별소방점검 및 주민안전교육, 소방출동로확보 계도활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화재발생으로 5분 이상 경과시 화재 연소 확산 속도는 급속하게 증가되므로 화재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초기진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무리하게 불을 끄려다 목숨을 잃을 수 있으므로 '피난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파트단지에 소방출동로를 확

보하는 한편, 가정에서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불장난 예방조치 강구, 소화기 유지관리 철저 및 적정위치 배치로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는 단독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빨래 및 음식물 등을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가스 불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자.

한선근 / 보성 119안전센터 소방위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背邙面洛

背邙面洛

▷ 뜻: 동경(東京)은 북(北)에 북방산(北邙山)이 있고, 낙양(洛陽)은 남(南)에 낙수(洛水)가 있음.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empathy.